

화순군민 78% “광주와 공동학군제 찬성”

56% “공동학군제 추진해도 인구 감소 영향 없을 것”

郡, 내달 도교육청에 요청…광주시교육청 입장이 관건

화순 지역민들 10명 중 8명은 광주시와
고교 공동지원제(공동학군제)를 추진하는
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대부분 지
역민들은 또 의료특성화고를 화순에 만드
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
로 나타났다.

하지만 화순군 의지와 달리, 광주시교
육청의 입장은 사뭇 달라 언제 추진될 지
여부는 불투명하다.

◇“공동지원제, 인구 감소 없을 것”=
공동지원제는 화순군이 학령 인구 감소가
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
로 떠나는 인구를 막아보겠다는 절박함이
 담긴 정책이다.
화순군이 ‘영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
전계획’을 내놓는가 하면, 초·중·고 30곳
에 60억원의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것도
무관하지 않다.

그럼에도 열악한 지역 교육 현실로 인해
“오히려 광주로 유학을 떠나도록 등을 떠

미는 정책이 될 것”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
았다.

이 때문에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
‘교육분야 공약사항 추진 관련 군민 설문
조사’ 결과는 의미가 크다는 게 화순군 설
명이다.

설문조사 결과, 공동지원제의 경우 78.
5%(471명)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고 반
대는 21.5%(129명)에 불과했다. 찬성 이유
로는 ‘학생 진로, 성적을 고려한 학교 선택
이 가능하다’고 답한 비율이 41.2%로 가
장 높았다.

특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이 화순 인구
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‘별다
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’이라고 답한 비
율이 28.7%로 가장 높았고 ‘교육 문제로
이사 가는 일이 감소할 것’이라는 답변도
27.7%로 나타났다. 지역사회에서 제기됐
던 광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
는 우려는 27.5% 수준에 머물렀다.

결과적으로는 56.4%가 ‘고교공동지원
제를 추진해도 인구 감소 등과는 관련이
없을 것’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셈이다.

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
에서는 ‘조속한 추진’이라고 답한 비율이
48.5%로 가장 높았고 시행 시기와 관련,
‘2019학년도 이후’와 ‘2020학년도 이후’가
각각 35.8%로 가장 많았다.

지역민들은 또 화순 교육의 시급한 과제
로 49.3%가 ‘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’을
가장 많이 꼽았고 우수교원 확보(46.3%),
교육환경 개선(44.0%) 등의 순이었다.

화순군은 또 지역민 300명을 대상으로
한 의료특성화 학교 유치에 묻는 조사에
서는 10명 중 9명 꼴(90.3%)가 찬성 의견
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.

◇화순은 적극적, 광주 입장은=화순은
‘교육분야 공약사항 추진 관련 군민 설문조
사 용역 결과 보고회’를 통해 지역민들의
찬성 의견을 확인한 만큼 핵심 정책인 공동
지원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화순군은 당장, ‘설문조사 결과를 반영,
다음달 초 전남교육청에 광주와의 공동지
원제를 추진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’이

라고 밝혔다.

전남도교육청은 화순군이 요청하게 되
면 광주시교육청에 고교 공동학군제 실시
를 요청하게 된다.

앞서,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화순군과
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교 공동
학군제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상태다.

문제는 광주교육청 입장이다. 광주교육
청은 지난해 화순군과 전남교육청과 협약
을 체결할 당시 화순 뿐 아니라 나주혁신
도시를 비롯, 장성, 담양도 함께 연구하자
는 포괄적 학군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.

화순만 하는 것보다 광주 인근 지역을
모두 포함해 검토하자는 방안이지만 교육
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동학군제
가 성사되면 ‘공동화’가 불보듯 뻔하다는
점에서 전남교육청의 반발을 샀었다.

또 공동학군제가 추진될 경우 전남에서
유입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교육비 등
광주 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
데 따른 부담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
시행되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
망이 우세하다. /김지을기자 dok2000@
/화순=조성수기자 css@



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담양 신품종 딸기 ‘메리퀸’.

〈담양군 제공〉

담양군 신품종 딸기 ‘메리퀸’ 내년 보급

담양군이 개발한 신품종 딸기 ‘메리
퀸’이 내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
게 됐다.

메리퀸은 담양군이 10년의 연구 끝에
개발한 신품종 딸기로, 국립종자원 품
종출원을 거쳐 내년 본격 보급될 예정
이다.

담양군은 축향, 담향에 이어 세 번째
로 자체 육성 품종을 개발, 로열티 지불
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, 수
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
예상하고 있다.

메리퀸(Merry Queen)은 ‘모든 이에

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의 여왕’이라는
의미로, 당도와 경도가 설향 품종보다
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.

메리퀸은 조기수확이 가능하며 흰가
루병 등 병에도 강하고 4년에 걸친 농가
실험 결과, 당도가 높고 수확기에 과실
이 무르지 않아 수출에도 좋다는 게 담
양군 설명이다.

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사
는 “지속적인 신품종 개발 연구를 통해
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품종 개발, 농
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
겠다”고 말했다. /담양=정재근기자 jrg@

장성군 ‘채무 제로’ 눈앞

올해까지 78억 조기 상환

내년 67억…2019년 청산

장성군이 ‘채무 제로’ 시대를 눈앞
에 두게 됐다.

28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
2014년 7월 145억원에 달했던 채무를
줄이기 위해 유두석 군수 취임 직후
2019년까지 군비 부담금·수익자부담
금·국비 부담금 등의 채무를 단계적으
로 청산하는 내용의 ‘재정 건전화 로드
맵’에 따라 빚 청산을 추진중이다.

장성군은 2015년 공공청사 정비 사
업, 쓰레기 매립·소각 시설 건립 사업
관련 남은 채무액 15억6000만원을 포
함한 37억원을 조기 상환했다.

장성군은 지난해, 올해 삼사면에 있
는 귀촌 마을인 드림빌과 농공단지 조
성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채무를 각각
19억원과 22억원 상환하는 등 올해까
지 78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다.

내년에는 드림빌과 농공단지 조성

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채무 잔액액 67

억원을 모두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.

장성군은 수익자부담 채무 67억원

을 미리 갚으면 총 20억원가량의 이자

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장성군은 ‘재정 건전화 로드맵’이 계
획대로 이뤄지면 2019년 말에 상환을
끝내는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 관
련 국비 부담금 3400만원만 남게 된다.

이 국비 부담금까지 상환하면 군비
부담금·수익자부담금·국비 부담금을
등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게 된다.

장성군의 채무 제로화는 재정자립도
(올해 8.7%)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
식 공공 실버주택 등 대규모 국비 사업
을 연이이 시행하는 과정에 거둔 결실이
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.

각 사업에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
게는 200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유지하
면서 군 재정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.

국립 심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경우
예산 사업비 3500억원 전액을 국비로
추진하면서 연구용역 추진비 등 일부
를 제외하고 장성군이 안아야 할 부담
은 많지 않다.

장성군 관계자는 “중앙부처의 각종
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국·도
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장성=김용호기자 yongho@

장성호 숲길 ‘임도시설 경진대회’ 최우수상



장성호 주변에 조성된 숲길이 최근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‘2017년 임도시설 우수사례
경진대회’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. 장성호 숲길은 수변 데크길과 어우러지면서 수려한
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숲길로 입소문이 났다. 내년 상반기에는 장성호 위를 지나
는 156m 길이의 ‘출렁다리’가 완공될 예정이다. <장성군 제공>

담양군 내년 예산 3442억원…12% 늘어

드론 경기·체험장이 만들어지고 남도
정원이 조성된다.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
사업도 추진된다.

담양군은 이같은 예산안을 담은 2018
년 예산안을 편성, 군의회에 제출했다고
28일 밝혔다.

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60억원, 특
별회계 82억원 등 3442억원 규모로, 올
해 본예산(3064억원)보다 378억원(12.
3%)이 늘어났다.

세부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공동체 강
화를 위한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고 지
명전년 기념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다.

또 담빛역사체험장(25억원), 담빛야
외음악당(10억원), 메타씨를 프로젝트
(14억원) 등을 위한 사업비도 반영됐고

드론 및 조경수 인력 양성사업에도 12억
원을 편성, 본격 추진키로 했다.

축목원 인근에 남도정원(20억)도 사
업비를 편성, 내년 적극 추진할 것으로
예상된다.

담양군 관계자는 “모든 사업을 원점
에서 재검토,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효과
를 분석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
폐지하거나 감액했다”고 말했다. /담양=정재근기자 jrg@

담양문화회관 내일 ‘시를 읽고 떠나는 담양여행’ 공연

‘시를 읽고 떠나는 담양여행’ 공연이
오는 30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
연장에서 선보인다.

창작 공연 ‘시를 읽고 떠나는 담양여
행’은 제 4회 담양송순문학상 대상 수상
작인 이지엽 시인의 ‘담양에서 시를 문
다’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.

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, 담양
문화원 풍물패 등이 어우러지는 공연

으로 ‘청죽골예찬’(담양아리랑), ‘메타
세취리아 멜로디’, ‘달빛내리는 밤’(소
쇄원에서) 등 담양의 명소들을 감성적
으로 표현한 공연을 무료로 만나볼 수
있다.

또 ‘달빛이 다슬기를 걷는 소리’, ‘담빛
에가’, ‘담양의 가을’ 등 담양의 서정적
인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 곡들도 감상
할 수 있다. /담양=정재근기자 jrg@



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(주)

20년경력 조여사 010-6211-4585

경,공매 컨설팅

수익형 추천

- ★ [건물]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
대지 3,906㎡ 건물 2,689㎡
매매 81억 투자자가능 (수영장, 키즈카페, 사우나)
- ★ [건물]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
(사육최적합 대로변, 병원가능)
대지 777㎡ 건물 5,900㎡ 매매 55억 (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)
- ★ [건물] 동구 동명동 대로변점 상가주택건물 5층
대지 452㎡ 건물 1,464㎡ 매매 17억 (사우나)
- ★ [건물]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
상무대로변 대지 1342㎡ 건물 413,49㎡ 매매 49억
(주상복합, 쇼핑타운적합부지)
- ★ [건물]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
지하1층~지상5층 대지 198㎡ 건물 729㎡ 매매 25억
(보5억6천500만)

병 원

- ★ [의료시설]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
토지 552㎡ 건물 995㎡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
- ★ [의료시설]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~지상4층
대지 3,000㎡ 건물 3,568㎡ 매매 56억
- ★ [의료시설]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
토지 1,490㎡ 건물 6,646㎡ 최신시설 매매 75억
- ★ [의료시설]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
토지 2,319㎡ 건물 3,998㎡ 매매 73억
- ★ [의료시설]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
토지 8,630㎡ 건물 6,300㎡ 매매가 (상담요망)

공·경매 교육안내

저희 공·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(주)에서는
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·경매 실전교육을
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시 :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
2. 장소 : 본 중개법인 강의실
3. 교육내용 :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·경매 과정
4. 대상 : 1) 공인중개사 2) 공·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
5.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
6. 강사
 - 1) 본 법인 이사
 - 2) 전,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·경매과정 겸임교수
 - 3)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·매수신청교육 교수

*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광주, 전남 병원건물(요양, 한방) 매매, 임대, 다량보유 / 사우나건물 전문상담

공인중개사 김재훈 062-714-2251